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2호 【루계 제25661호】 주체106(2017)년 6월 1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의 핵강국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세폭의 붉은기 날리며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전진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는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서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이 기관차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당조직에서는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종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짧은 기간에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구내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혁명사적과 연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다.

당조직에서는 기술혁명, 문화혁명수행에서도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공장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수많은 발명과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현대적이며 고속화된 설비들을 제작설치함으로써 종업원들의 로동조건을 개선하고 생산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도록 하였다. 과학기술보급실과 수영장을 갖춘 편의시설, 탁아소, 유치원,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손새없이 꾸려놓고 구내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여 지난해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난 1월 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저관철하기 위하여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160여가지의 이불무늬도안을 창작하고 자수기프로그람과 단침이불누빔기를 도입함으로써 여러가지 질좋은 이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어놓게 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지난 5월 상반년 명주실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전국의 본보기공장, 전형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도록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3대혁명수행에서 모범적인 혁신자들을 위한 축하모임, 출근길환영, 방송선전차활동 등 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대중운동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였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방수선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공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22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학생교복천과 가방천생산을 보장하고 해마다 천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지난해 1월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과업을 받들고 만리마속도창조투쟁에로 종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지난 4월말까지 맡겨진 천생산계획을 수행하고 5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무산공장 당조직에서도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보화,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옥당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주체당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47종에 116대의 설비들을 제작설치하여 국산화비중을 95%이상으로 보장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5 800여㎡의 생산건물들에 대한 외벽타일붙이기와 정질벽판지붕씌우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도록 하였다. 공장구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 사업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6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로부터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는,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만 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2. 8직동청년탄광 당조직에서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석탄증산으로 당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소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주신 간곡한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공기복합식선탄기를 제작설치하고 240여건의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하였다.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최근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고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는 매일 평균 수천t의 석탄을 생산함으로써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고경찬영웅소대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정면, 중대면 증산경쟁열풍을 일으켜 매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였다. 종업원살림집과 문화회관, 청년합숙, 탄부영양제식당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6만여㎡의 도로포장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탄광부문의 전형단위, 본보기단위로 계속 앞장서나가게 하였다.

평양껍공장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1월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봄소공장에 찾아오시여 여러가지 질좋은 껍을 더 많이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주신 유훈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적극 지향시켜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향료와 단맛감의 미세교갈화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껍생산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고 당액용해기, 알껍선별기 등 70여건의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도록 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맡겨진 껍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만리마시대를 힘있게 추동하게 될 력사적인 대회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령도업적단위 당조직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은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자력자강의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돌격해가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5월 27일까지 월세멘트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여 5만여t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계급이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앞장에 섰다. 이들은 1호, 2호소성로와 분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일별계획을 11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련속공격전의 불길드높이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마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상반년,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떠솟되고있다. 공무직장과 자동차직장에서 16명의 전투원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지대렬에 선참으로 들어서고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의 10여개 소대가 이미 상반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특히 상원석회석광산의 운광직장 중기계2소대가 년간 광석상차계획을 남먼저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였다.

조합원료직장, 원료직장과 보수직장, 주강직장의 로동자들이 1호, 2호생산계렬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입출봉광산과 화천탄광의 로동계급도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창조하며 5개년전략교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국방과학전사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을 본받아 세멘트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고무산세멘트공장에서—

모내기전투성과로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동해지구의 농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동해지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 알곡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 열의드높이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함경북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알곡증산성과로 보답할 결의드높이 일정계획을 110%이상으로 넘쳐 수행함으로써 기본면적의 모내기가 5월 31일현재 95%계선을 넘어섰다.

도당위원회와 도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이 시, 군들을 맡고 내려가 전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방도를 모내기선행공정에서 찾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나갔다.

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앞선 모기르기방법과 과학적인 벼모관리로 하나같이 튼튼한 벼모를 길러낸데 이어 논물대기와 써레치기를 확고히 앞세워 전투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룡성, 일신, 목성,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길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선행공정을 앞당기고 지원로력이 없이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시작하여 5월 27일까지 결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원, 화대, 명천군을 비롯한 많은 군들에서도 벼모생육이 앞당겨진 조건에 맞게 력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모종류별로 모내기를 적기일나이에 진행하도록 짜고든 결과 5월 30일까지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랑군에서는 룡평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전반적인 협동농장들에서 모온반용씰대와 끝판을 갖추어놓고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모꽂는 깊이 등 기술적요구를 지키면서 모내기를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세우고 모내기전투에 떨쳐나 기세를 무쩍 올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모내기의 질보장에 중심을 두고 협동농장들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에서 모내기기술전습회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여 이른근모에 의한 논벼이랑소식재배를 전면적으로 도입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하였다. 이와 함께 용도에 맞는 이랑짓는기계들을 적극 생산리용하면서 이랑짓기를 선행시켰다.

도적으로 매일 일정계획보다 150여정보나 많은 면적에 모내기를 진행하는 속에 안변, 이천, 금강, 판교, 법동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서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냈다.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다수확을 내여 통장훈을 부를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도에서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는것으로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시작하였다.

도, 시, 군책임일군들은 랭해를 많이 받는 해안가지방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튼튼히 키운 모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내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정치사업과 전투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일군들은 벼모종류별 모내기출발대수보장과 농기계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한편 모살이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계획성있게 세워나가고있다. 리원, 북청군에서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계획보다 앞당겨 푸른 주단을 펼쳐놓았으며 불리한 날씨조건을 이겨내고 모를 실하게 키울 함흥, 단천시와 금야, 함주, 홍원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도 시간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농사를 잘 짓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길이라는것을 심장에 새기고 떨쳐나선 이들의 투쟁은 동해지구에 풍년든 가을을 펼쳐놓을것이다.

강금성

상반년계획 앞당겨 완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전민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서탄광과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성천강전기공장의 로동계급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련속공격,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강서탄광에서

강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탄광에서는 지난 5월 23일까지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2갱에서 제일먼저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한데 이어 1갱, 6갱, 봉화갱을 비롯한 여러 갱들에서 련이어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함으로써 탄광에서는 상반년계획을 한달이상 앞당겨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포시당위원회에서는 강서탄광의 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련관단위들간의 협동작전으로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석탄증산투쟁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고조시키는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였다.

탄광의 책임일군들은 막장에 내려가 갱일군들과 진지하게 협의도 하고 증산에비도 먼저 찾아내면서 온 탄광에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중요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갱목생산현장에 나가 많은 량의 동발나무를 해결하기 위한 전투를 조직하여 석탄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탄광에서는 새로운 발파방법을 여러 갱들에 도입일반화하였으며 결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발파효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유리한 개소들에 양수설비들과 기능공들을 집중배치한 일군들은 갱내물빼기를 중단없이 내밀어 유리한 작업조건을 조성하고 새로운 탄맥들을 마련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교차생산과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운반로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준비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예비탄맥을 마련하고있다.

온 탄광에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뜻뜻이 들어서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타번지는 속에 2갱과 1갱, 6갱과 봉화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 탄부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석탄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준비굴진 및 기본굴진실적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지난 5월 15일까지 상반년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2.3%로 완수하였다. 분전함, 콩작기계용료류절촉기, 천정등과 같은 주요지표들의 상반년생산계획도 각각 101%, 122.7%, 106%로 앞당겨 수행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일군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따라앞서고 따라배우며 새 기록, 새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당책임일군이 직접 방송선전차를 타고 돌며는 전투현장에서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였으며 참모부의 일군들도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앞채를 메고 뛰였다.

강원도정신창조자들과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련속공격전이 벌어지는 속에 일터마다에서 날에날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소재준비직장의 로동자들은 설비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애호관리하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다음공정에 소재와 제관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었다.

함조립직장과 무리등직장의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무단히 높여가며 분전함과 천정등생산을 늘여나갔다.

조작기구직장에서도 모든 로동자들이 누구나 두뇌, 세몫씩 일감을 맡아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상반년 공작기계용교류접촉기생산계획을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성천강전기공장에서

성천강전기공장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태양절까지 상반년 공업총생산액계획과 전동기생산계획을 완수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소식에 접한 후 더욱 분발하여 4월말까지 상반년 전동기생산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줄기찬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참모부에서는 증산의 지름길을 과학기술중시에서 찾고 일터마다에서 기술혁신의 된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두뇌전, 기술전의 전례없는 열풍이 휘몰아치는 속에 공장에서는 산소수소발생기를 복극식으로 개조함으로써 종전보다 전력소비를 1/3로 줄이고 가성소다용액을 30%나 절약하면서도 질좋은 산소, 수소를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소재직장에서는 단락소둔기의 여러 부분품들을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소둔기의 보수주기를 종전에 비해 5배이상 늘이였으며 단조품, 절연와니스를 비롯한 생산품들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주물직장에서는 주물품제작에 개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소재의 질을 보다 개선하고 소재가공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이바지하였다. 형타, 가공, 프레스직장에서도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전동기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에서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생산의 마감공정을 맡은 조립직장 로동자들도 제품의 질제고에 큰 힘을 넣고 각종 부속품들의 조립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본사기자 김충성

현대적인 준첩선을 새로 무었다

신의주항에서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신의주항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200hp자동종합준첩선을 새로 무었다.

이번에 무어낸 준첩선은 콤퓨터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하여 모래와 감량을 분류하고 혼석을 규격별로 갈라내면서 시간당 수백t, 매일 수천t의 질좋은 모래와 규격자갈을 생산할수 있는 혼석생산설비이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이와 함께 150t급부선 2척을 260t급자행부선으로 개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교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신의주항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신의주항(당시 신의주암록강운수사업소)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압록강을 준첩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업소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박영성, 김영철, 리현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갔다. 일군들은 현대적인 200hp자동종합준첩선을 새로 무어내며 지난해에 건조한 150t급부선 2척을 260t급자행부선으로 개조할 목표를 세우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항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난 1월 현대적인 준첩선건조와 자행부선개조전투에 달라붙었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리과대학 연구사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우리 식의 현대적인 200hp자동종합준첩선설계를 완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은 북해은성 항만수상운수관리국과 도안의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의 방조밑에 자재와 설비, 협동품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자 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기술자, 로동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시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해당 부문 일군협의회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적극 도와주었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려 불과 5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200hp자동종합준첩선을 무어내고 150t급부선 2척을 260t급자행부선으로 개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항에서는 지난 5월 28일 현대적인 200hp자동종합준첩선과 2척의 260t급자행부선을 압록강에 띄우고 첫 시운전을 진행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창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습니다. 김 정 일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보천보의 홰불》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보천보의 불길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혁명의 홰불로 타오를것입니다.》

보천보전투를 소재로 한 문학예술작품들가운데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보천보의 홰불》도 있다.

주체43(1954)년 5월초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득하기 위한 사업이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월 4일을 맞으며 보천보전투에 대한 연극을 준비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연극대본을 직접 맡아쓰시였으며 창조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극연습을 날자별로 계획하시고 연극의 전반적흐름과 연출, 소도구준비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완성해나가시였다.

연극연습과정에는 가슴뜨거운 일도 많았다.

처음 무대에 출연하는 학생들의 연기를 해결한다는것은 조면치 않은 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찰임무를 받은 유격대원의 역을 맡은 학생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이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장난삼아 연기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연극은 한두사람이 잘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동무들이 자기가 맡은 역형상을 높은 열성을 가지고 잘해야 성공시킬수 있다고 타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원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분이시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품의 형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는 아버지원수님의 위대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연극공연을 준비한다고 학생들을 깨우쳐주시였다.

경찰서장의 역을 맡은 한 학생의 연기수행을 위해 창문가에 서시여 그에게 비쳐드는 해빛을 막아주시고 연습때마다 의자에서 넘어지는 연기를 수행해야 하는 그를 념려하시여 바람을 불어넣은 고무주머니를 옷속에 넣어주신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또 언제인가는 학생들을 몸소 지택에 데리고가시여 우리 인민들이 어버이수령님을 뵙는 순간의 격정도 직접 체험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진정 혁명연극 《보천보의 홰불》 공연을 발기하시고 그 창조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학생들의 열의는 더욱 고조되고 연습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주체43(1954)년 6월 4일!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일을 맞으며 평양제4인민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혁명연극 《보천보의 홰불》 공연은 17년전 보천보의 그밤을 옮겨놓은듯 사람들의 심금을 완전히 틀어잡았다.

사람들은 막이 닫긴 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박수갈채와 환호를 계속 보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이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차고넘치였다.

연극에서 타오른 력사적인 홰불은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거대한 홰불이였으며 혁명적연극발전의 기치로 되는 불멸의 홰불이였다.

문학예술부문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전모를 보여준 이 혁명연극을 오늘도 명작창작의 본보기로 대를 이어 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룡

항일의 전통을 빛내이시는 길에서

청봉숙영지가 전하는 사연

주체60(1971)년 9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른아침 청봉숙영지를 찾으시였을 때 강사들과 일군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더 컸다. 북방의 차디찬 가을비가 때아니게 쏟아지고있었던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깊은 감회속에 청봉의 푸른 산발을 바라보시며 청봉숙영지는 수령님께서 1939년 5월에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여 첫밤을 보내신 의의깊은 곳이라고, 청봉숙영지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조국땅에서 첫밤을 지내면서 씨놓은 구호나무들이 그대로 보존되여있기때문에 다른 숙영지들보다 더 의의가 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숙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보러 왔다고 하시며 흔연히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이때 비발이 더 굵어지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옷자락은 물론 신발까지도 죽 젖어들었다.

강사들과 일군들이 잠시라도 비를 그으실것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에 찾아왔는데 비를 좀 맞으면 뭐라는가고 하시며 내처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할데 대해서와 구호나무판리에 대해 강령적인 교시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찬비를 맞으시며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뜨거운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시대의 걸작으로

삼지연을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으로 꾸리실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삼지연대기념비형성안을 완성해가던 때의 일이다.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였지만 기념비의 중심주제를 옳게 정하지 못하다나니 그들이 완성한 삼지연대기념비형성초안을 종합해놓고보면 이미 전에 건립하였던 기념비들의 확대판에 불과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비의 조각군상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가 무산지구에로 진출하던 때의 생활을 담아야 그 내용이 명백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종래와는 달리 탑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옆에 세우고 사적비도 탑과 련결시키며 탑 맞은편에는 무산지구전투를 형상한 군상과 전례없는 규모의 화강석조각상인 《진격의 나팔수》상을 세우고 동상 랑옆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형상한 조각군상들을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러차례나 무산지구에로 진출하던 때의 생활을 담아야 그 내용이 명백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종래와는 달리 탑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옆에 세우고 사적비도 탑과 련결시키며 탑 맞은편에는 무산지구전투를 형상한 군상과 전례없는 규모의 화강석조각상인 《진격의 나팔수》상을 세우고 동상 랑옆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형상한 조각군상들을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후에도 어러차례나 삼지연대기념비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생활적인 장면들을 함축하여 생동하게 형상하도록 하며 조각창작에서 류사성을 결정적으로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형상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삼지연대기념비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예술적형상에서 극치를 이룬 로동당시대의 걸작으로 솟아 빛날수 있었다.

현지에서 완성해주신 개작안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3월 어느날이였다.

여러날에 걸쳐 량강도혁명전적지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바라보시는 그이의 생각은 깊으시였다.

당시의 기념탑은 그 형식에 있어서 조선혁명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무산지구전투승리를 기념하는 탑으로서의 사명에 맞지 않았을뿐아니라 형상수준도 높지 못했던것이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을 전면적으로 개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념탑을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형상하여 세울수 없는 조건에서 형상수준을 높여 예술작품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기념탑뒤면에 무산지구전투가 있은 때로부터의 대홍단의 력사를 폭넓게 보여줄수 있게 부각상을 잘 형상할데 대한 문제, 교양마당을 만들며 비문도 다시 새롭게 잘 쓰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개작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에 지도모르게 격정의 파도가 설레이였다.

그들에게는 벌써 새로 건립될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드는것만 같았던것이다.

그후 무산지구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백두산청년장군을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홍대탑, 대형부주제부각군상과 혁명사적비로 이루어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 훌륭히 건립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원 남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

삼지연군 보서농장 당조직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위대성교양을 사상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계획을 주, 월, 분기별로 정확히 세우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있으며 그 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있다. 또한 일군들부터가 위대성자료들에 대한 학습을 심도있게 진행한데 기초하여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조국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생동한 자료들을 들어가며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자고 호소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새로운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선 월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새겨주는 보천보전투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6월 4일 보천보인민들앞에서 하신 연설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진행된 보천보전투에 대한 자료들과 그때 사용된 조선인민혁명군의 기관총

보천보전투소식을 실은 신문과 적들의 자료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대한 사랑과 믿음속에 걸어온 영광스러운 행로

《평양신문》창간 60돐을 맞으며

조선혁명은 총대와 함께 사상의 위력, 붓대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해나가는 불패의 위업이다.

혁명의 붓대가 튼튼해야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할수 있으며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우리의 정치사상전지를 끝까지 옹호고수할수 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넣은 첫 시기부터 혁명적출판보도물의 위력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평양신문사가 걸어온 긍지높은 60년의 력사가 이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창간 6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이곳 신문사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영광만을 새겨온 부피두터운 연혁사를 다시금 뜨겁게 펼쳐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습니다.》

주체46(1957)년 4월 어느날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걸음을 다그치는 일군의 머리속에는 그이께서 경제건설과 관련하여 어떤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제1차 5개년계획의 첫해인 1957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었기때문이였다.

하지만 일군이 말아안은것은 뜻밖에도 경제건설이 아니라 새로운 신문창간과 관련한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비롯한 중앙신문들과 지방신문들이 수십종 발간되고있다, 그런데 웅장하게 건설되는 평양시의 모습과 수도시민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신문이 아직 없다, 그래서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수도신문인 《평양신문》을 발간할것을 생각하여왔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은 크나큰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조선혁명의 심장인 수도 평양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립장을 대변하는 특색있는 신문이 탄생하게 되였으니 얼마나 의의깊은 일인가.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조직되는 평양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을 경험있는 일군들로 선발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방향에서 《평양신문》을 발간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이렇듯 《평양신문》을 내올것을 직접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평양신문》창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주체46(1957)년 5월 어느날 한 팔프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앞으로 《평양신문》을 새로 더 내오려고 하는데 국가과제외에 종이를 더 생산할수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 공장일군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계획외에 신문종이를 더 생산하여 꼭 보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동행한 일군에게 이 동무들을 믿고 새로운 신문을 발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점심은 좀 미루더라도 공장을 더 돌아보아야겠다고 하시며 원림직장으로 향하시였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앞을 막아나서며 나무를 삶아내는 목부실에만은 가실수 없다고 말씀올렸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목부실에서는 나무를 삶을 때에 생기는 역한 아류산가스냄새가 풍기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목부실에 들리시여 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보이라실로 향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이 더욱 그만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의향을 거듭 말씀올렸으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동무들이 신문을 새로 더 발간하도록 종이를 대주겠다고 하는데 걸린 문제를 다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 어려곳을 돌아보시며 종이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서야 공장을 떠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신문》창간을 위해 바치신 로고에 대하여 말해주는 이야기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언제인가는 신문제호도안을 어러차례 보아주시며 제호는 어떤 글체로 하며 그 배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신문배포문제에 대하여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신문》의 창간을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끝없는 헌신속에 《평양신문》은 주체46(1957)년 6월 1일 자기의 창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평양신문》이 창간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문이 수도시민들의 교양자, 수도생활의 안내자, 특색있고 생활적인 신문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편집사업에서 주체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문제, 신문의 특성을 잘 살릴데 대한 문제…

《평양신문》이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힘있는 출판보도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다심한 령도에는 끝이 없었다.

때로는 평양신문사 기자들에게 글감들도 친히 제시해주시고 또 《평양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시며 글은 짧지만 고추알같이 맵다고 붙여 넘치는 평가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주체49(1960)년 10월 어느날 《평양신문》에 실린 정론 《로동당시대》를 보시고 우리 당이 창건되여 15년이 되는 기간에 성과들도 많았지만 오늘 아침에 제일 기뻤다고 하시며 어러차례 치하해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찬 하많은 사연들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신문》이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출판보도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평양신문》창간호가 나온 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오늘부터 새로운 신문인 《평양신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간해주신 《평양신문》은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평양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립장을 대변하는 수도의 대중정치신문이라고 그 성격과 지위, 사명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매일과 같이 신문을 보아주시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상한 통찰력과 해박한 식견으로 신문편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신문의 특성을 살리고 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신것을 비롯하여 신문보도편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는 얼마나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신문사기자, 편집원들이 훌륭한 조건에서 취재집필활동을 마음껏 벌리도록 훌륭한 청사를 지어주시고 귀중한 사진설비들과 위재용승용차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신문사가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은 《평양신문》이 우리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적극 추동하는 강위력한 힘을 지닌 출판보도물로 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신문》은 1960년대를 천리마시대로 빛나게 장식하도록 수도시민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도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이곳 신문사 기자, 편집원들은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앞에서도 주호의 동요없이 당이 맡겨준 사상진지를 굳건히 지키였다. 혁명의 붓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수도시민들을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켰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기사들을 팡팡 쏘냄으로써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붓대전사들의 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평양신문사는 이러한 력사적공적으로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높은 국가표창을 받게 되였다.

정녕 《평양신문》이 오늘과 같이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 수도시민들의 교양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친근한 교양자, 방조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양신문》령도사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맞게 《평양신문》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따사로운 보살피심은 신문편집사업을 비롯한 신문사사업에서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을 이룩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장,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장을 비롯하여 당에서 중시하는 전구들에 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을 세워주시고 기자들이 창작한 기사들과 사진, 편집물들을 세심히 지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평양신문》은 자기 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참으로 《평양신문》이 새겨온 60년의 자랑찬 연혁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해온 영광스러운 행로로 빛나고있다.

창간 60돐을 맞이한 평양신문사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가슴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길이 간직하고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사상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여나갈 일념으로 세차게 맥동치고있다.

모진 광풍이 몰아쳐와도 혁명의 붓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받드는 길에서 당의 붓대전사의 존엄과 영광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이것이 평양신문사의 전체 일군들과 문필가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우리 당의 사상진지를 억척같이 지켜선 믿음직한 붓대가 되여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걸어온 《평양신문》은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앞장선 수도의 전구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드세찬 사상공세, 보도선전공세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전야에 혁신의 기상 나래친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할 불같은 의지

전국의 농촌들에서 모내기일정계획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울릴 불같은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당면한 모내기전투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농촌들에서 모내기계획을 매일 1.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 자랑찬 성과는 전례없는 알곡증산성과로 당 제7차대회 정신을 보위하려는 전국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기상과 의지의 뚜렷한 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의 기상 세차게 나래치고있는 서해벌방의 농촌들에서 모내기전투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의 불바람이 일고있다.

나라의 주요곡창지대의 하나인 연백벌이 날마다 실적을 올리며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청단군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높이 세운 모내기일정계획을 매일 1.2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군에서는 중간늦종의 논벼품종을 배치한 조건에 맞게 각 농장들에서의 모내기시작을 지난해보다 5일정도 앞당기도록 하고 이 사업에서 앞장선 농장들의 좋은 경험들을 적극 일반화하고있다.

결과 읍협동농장 제1, 2작업반이 모내기전투결속의 기발을 남먼저 휘날린데 이어 금학, 청정, 양화, 화양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장들에서도 시간을 다투며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연안군에서는 긴밀한 작전으로 물길의 물통과능력을 3배로 높이였다. 또한 마른논써레치기를 하고 물을 댄 논의 수평고루기를 한주일정도 선행시켜 매일 1천여정보의 모내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이와 동시에 련속공격전을 들이대고있는 배천군에서는 높이 세운 모내기일정계획을 1.2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재령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찬 알곡증산성과를 안고 멋멋이 들어설 일념밑에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너도나도 만리마를 타기 위한 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안악군에서는 안악농장과 오국, 구와, 경지, 덕성, 엄풋협동농장이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신천군에서도 백수십개의 작업반, 500여개의 분조들이 긴장한 전투를 벌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냈다. 수백대의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들이 포전을 누벼가고있는 재령군에서도 기본면적에 대한 모내기가 높은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열두삼천리벌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을 쌀로써 받드는 참된 애국농민이 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모내기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있다.

지난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한 숙천군에서는 160여대의 모내는기계들을 혁신적으로 개조하여 품이 많이 들던 큰 모내기를 매일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정원군에서는 지난해보다 1.2배로 높이 세운 모내기일정계획이 어김없이 집행되고있으며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은 문덕군에서는 매일 수백정보에 대한 모내기가 결속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갈 불같은 충정을 안고 모내기전투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룡천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에 넘쳐 계속혁신의 한길로 내달리고있다.

물논이랑짓는기계를 적극 리용하고있는 룡천군에서는 정보당 1t이상의 알곡을 증수할 담보를 가지고 매일 기본면적의 8%에 해당한 논에서의 모내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승리의 직선주로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염주군에서는 밤술을 뜨는 사람이라면 모두다 떨쳐나 모내기를 다그치고있다.

운전벌에 위치한 운전군과 정주시, 박천군안의 농장들에서 모내기전투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오르고있으며 한드레벌에서도 높이 세운 일정계획이 날마다 넘쳐 수행되고있다.

동해지구의 협동벌에 굴함없는 공격정신, 결사관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올해 함경남도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우박이 내리는 등 모내기에 매우 불리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하지만 모내기의 적기보장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과 직결된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본 함주벌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로 떨쳐나 드넓은 대지에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얼떠먼 비모를 다시 내는 한이 있더라도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리려는 이들의 불같은 애국열의에 떠밀려 함흥시와 함주, 금야군안의 협동벌마다에서는 련일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이 실천으로 증명되고있는 안변벌에서는 매일 10%이상의 논면적에 푸른 주단이 펼쳐지고있다.

룡천군에서는 당일실적이 전날에 비하여 20%나 뛰어올랐으며 문천시에서도 모내기면적을 계속 넓히고있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비상히 분출시켜나가고있는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에 의하여 전국적인 모내기전투를 계획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결속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

바야흐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모내기전투승리의 우렁찬 함성이 높이 울려퍼질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일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봉 천 군 에 서

무슨 일이나 성공하자면 과학적인 담보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내기전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는 봉천군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농사에 쓸 물량은 60%, 이 수자를 놓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군일군들의 얼굴빛은 밝지 못하였다. 물은 곳곳에 우물과 굴포를 파고 저류지, 물주머니 등을 비롯한 물확보시설공사를 하여 적지 않은 물을 잡았다. 또한 군안의 농장들에서 물절약형농법인 원그루큰모와 영양단지큰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물문제를 무조건 풀 목표를 세운것만큼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이때 일부 일군들은 물보장이 유리한 지역들에서 먼저 모내기를 시작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비가 내린 다음에 력량을 집중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군책임일군은 의견을 달리하였다.

농사는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다는 관점에 서야 물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도를 찾을수 있다. …

그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일군이 한가지 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물보장조건이 불리한 포전들에서 마른논써레치기를 하여 물을 최대한 절약하는것과 함께 영양단지큰모를 내도록 하자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포전들의 토양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정보의 논에 모를 내는데 평균 0.3정미정도의 물이 있으면 된다, 중요한것은 마른논써레치기를 한주일 선행시키는것이다, 지난해 한촌협동농장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있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해 일부 포전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여 가물피해를 받지 않았다, 결과 정보당 수확고도 높았다고 말하였다.

일군들은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에 포로되여 요행수를 바라며 모내기를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올해농사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작전해야 한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마른논써레치는 시기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흙덩어리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모를 내면 뿌리가 토양과 흡착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아지치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때문에 마른논써레치기를 한주일정도 선행시키고 물대기를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이렇게 하면 적은 량의 물을 가지고도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었다.

여기로부터 군일군들은 올해에는 모든 농장들에서 마른논써레치기를 한주일정도 앞세우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결과 한촌, 한정, 신답, 읍협동농장과 대아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농장들에서 모내기선행공정인 마른논써레치기를 질적으로 하게 되였다.

물부족으로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되였지만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이 군의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하늘만을 쳐다볼것이 아니라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는 관점에서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전 명 일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 총집중

장 풍 군 에 서

장풍군에서 현재까지 70%의 논면적에 대한 모내기를 해제꼈다. 이 기세로 나간다면 모내기전투를 지난 시기보다 앞당겨 끝내게 된다.

이 성과는 군의 일군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기 위해 옳은 방법론을 찾아 현실에 맞게 구현해온 결과이다.

군일군들이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사업에서 제일 선차적인 문제로 내세운것은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사실 군에서는 이미 전에 수백개소에 보막이를 진행하고 굴포를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올해 물절에 지속되는 가물현상은 거기에 만족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일군들은 그 예비와 가능성을 찾기 위해 현지를 돌아보면서 대중토의를 심화시켰다. 결국 이들은 수십개소에 새 굴포들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가물을 극복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다.

음협동농장에서 물보장조건이 제일 불리한 10여정보의 포전에 물을 충분히 대기 위한 굴포공사는 참으로 어려웠다. 처리해야 할 토량과 거기에 드는 돌만 해도 수천㎥, 세멘트는 수십톤나 있어야 하였고 굴착기를 비롯한 물전기재들은 물론 분초를 다투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른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장을 뜨지 않고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음지구 주민들의 애국적헌신성에 의하여 이 공사는 불과 며칠동안에 완전히 결속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올해 모내기전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자각하게 한 계기로 되였다.

이처럼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킨 결과 짧은 기간에 군적으로 수십개의 굴포를 파서 물을 잡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군일군들은 모내기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모든 력량을 총동원시키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특히 농촌지원사업을 새롭게 짜고들었다. 즉 농촌지원의 날에 기관, 기업소단위로가 아니라 동, 인민반단위로 농촌지원전투를 조직진행한것이 그 실례이다.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생활하는 인민반에 소속되여 농촌지원에 참가하게 하니 누구나 자각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농촌지원의 날들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결과 농촌지원참가자수는 수천명이나 되였다. 군에서는 그 인원을 제때에 농촌들에 내보내기 위하여 수십대의 버스와 자동차들을 동원시키였다. 전에 없이 불만 한 그 광경은 총동원분위기를 최대로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그리고 모든 세대주들이 자기 안해와 한 포전에서 함께 일하는 조건에서 다른 가정에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높아진것은 물론이다.

또한 포전들마다에서 언제나 웃음꽃이 피여나고 자기 가정들에서 준비해간 음식들을 농장원들과 함께 나누며 오락회도 하니 그것은 그대로 혁신으로 이어져 하루 모내기실적이 1.4배로 뛰어올랐다.

여러가지 재미난 일화들이 풍겨난 농촌지원의 하루하루가 인민반사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계기가 되였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거다득의 효과를 거둔 농촌지원조직사업이였다.

이처럼 하나의 사업을 조직해도 깊은 사색과 연구로 모든 가능성을 찾아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는 이곳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로 하여 모내기전투승리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박 영 진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도록

문덕군 인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모내기가 시작되던 어느날이였다. 문덕군 인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장 안병철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겨 포전길을 걷고있었다.

이번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자면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야 하였다.

그런데 물조건, 비모상태 등이 작업반의 모든 포전들에서 모내기를 동시에 할수 있게 되여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줄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포전담당책임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생산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본질에 있어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집단주의위력을 떨침으로써 더 많은 알곡을 증산하자는데 있다.

모든 영농작업조직을 분조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보여주도록 하는데 지향시켜야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지 않겠는가.

작업반장은 초급일군들과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그 과정에 한가지 방도를 찾아내게 되였다. 그것은 모든 포전들에서 동시에 모내기를 할수 없는 조건에서 조를 무어 물과 모보장이 되는 포전부터 집중적으로 해제끼자는것이였다.

몇명의 농장원들로 조를 무으면 6월초까지는 작업반의 모내기를 전부 끝낼수 있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곧 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일정계획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짜고 적극 내밀었다. 농장원들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올해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자고 하면서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그중의 하나가 평가조를 무어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도록 한것이다. 즉 작업반장, 기술원, 부문당위원장, 분조장, 물관리공들로 평가조를 꾸고 모내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알려주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농장원들에게 때워주면서 영농공정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평가조성원들은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주고 총화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이 은을 냈다. 농장적으로 모내기가 제일먼저 끝났을뿐아니라 질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용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45호 주체106(2017)년 5월 2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필공장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륙신공장

2.8직동청년탄광

3대혁명붉은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질좋은 편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리원편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평양신문》창간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신문》창간 60돐 기념보고회가 5월 31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평양신문사 일군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신문창간 60돐을 맞는 평양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붓대중시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창간되고 발전하여온 《평양신문》은 혁명의 수도 평양의 이름으로 우리 당의 립장을 대변하는 대중정치신문이며 수도시민들을 보람찬 투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친근한 길동무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6(1957)년 6월 1일 평양신문사를 창립해주시고 신문의 제호를 친히 달아주시였으며 《평양신문》의 내용과 형식, 편집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수도시민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과 물질문화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전선동자, 조직자, 안내자가 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양신문》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기사편집을 다양하게 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시고 내용이 좋은 기사들을 쓴 일군들에게 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으며 기자, 편집원들의 위재집필활동과 생활조건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평양신문사가 지난 6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나라의 권위있는 보도기관으로 강화발전되여 수도시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영예로운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신문사에서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선 단위답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을 훌륭히 꾸리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명제들과 당의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5대교양관을 비롯한 직관판들을 제시하여 청사를 위력한 사상교양거점으로 변모시키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은 당이 안겨준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문헌, 혁명활동보도 및 중요정치행사들을 최우선적으로 편집하였으며 위대성교양을 비롯한 5대교양에 이바지하는 기사들을 풍위있게 집필하여 우리 당의 사상적근위병, 항일유격대나팔수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온데 대하여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신문사에서 실력경쟁, 명작창작경쟁의 불길높이 기사창작경기와 속필, 달필경기를 활발히 조직하여 기행문 《백두산을 닮자》, 정론 《조선청년행진곡》, 《기적의 년대》와 같은 명기사들을 창작해냄으로써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총진군대오에 더 큰 활력을 부어주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이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보도활동으로 수도시민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의 권위보위전에로 총궐기시키며 사회주의문화의 중심지인 혁명의 수도 평양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우리 식의 생활양식, 도덕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신문사 책임주필 최갑성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평양신문》의 60년력사는 혁명적출판보도물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와 우리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아진 영광의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신문사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심과 혁명임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보도선전활동을 줄기차게 벌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며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신문혁명, 보도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시대를 격동시키는 명작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여 당이 맡겨준 사상전지를 굳건히 지켜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간 60돐을 맞으며 받아안은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출판보도물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며 우리 당의 사상론을 신념의 표대로 삐에 새아박고 혁명적인 사상공세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전공적으로 벌려 수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타는 충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신문편집과 발행에서 정책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집필편집활동을 철두철미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며 《평양신문》을 수도시민들이 즐겨보는 참다운 교양자, 친근한 안내자가 되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기자들이 수도의 들끓는 전투장들을 종횡무진하면서 새롭고 특색있는 종자를 찾아쥐고 시대정신이 맥동치는 명작, 력작들을 창작하여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 만리마속도창조의 대승전고가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게 함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혁명적인 학습열풍을 일으켜 높은 정치적식견과 다방면적인 지식, 세련된 필력을 지닌 만능의 문필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며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일하면서 신문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언론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매진하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 떨쳐나선 수도시민들의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는 시대의 나팔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소년단창립 71돐기념 사진전람회 개막

조선소년단창립 71돐기념 사진전람회《해님과 해바라기들》이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주체적소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혁명인재,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보여지였다.

《주체적소년운동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조선소년단창립 15돐기념 조선소년단 전국현합단체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조선소년단 제5차대회에 참가한 소년단대표들의 인사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조선소년단을 창립해주시고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소년단원들의 가슴속에 우리 혁명의 뿌리, 명맥이 무엇인가를 심어주시고 혁명의 대를 억세게 이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후대사랑을 《평양제1중학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공원에서 기념식수에 참가한 소년단원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등의 사진문헌들이 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통상제막식과 야영소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새로 건설된 민들레학습장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평양초등학원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어머니당의 온혜로운 품속에서 미래의 주인공들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우리 소년단원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다.

개막식이 5월 31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일군들, 교원들, 시안의 학생소년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력사를 끝없이 이어가시며 이 땅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소년단창립 71돐 기념행사들을 의의있게 진행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선소년운동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전절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충직한 참된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혁명의 성지에로 굽이치는 충정의 마음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도와나선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온 나라의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적극 지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라선제지공장 회계원 림혜성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꾸리기에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근 20종에 90여점에 달하는 많은 물자들을 마련하여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운수기동련대에 보내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삼지연군꾸리기에 동원된 전투원들에게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백암군체신소 로동자 려성혁동무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대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훌륭히 일떠세운 백두청춘이라는 고귀한 영예와 자랑을 안고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면서 돌격대원들에게 여러차례 성의껏 마련한 담요와 작업복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어 그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아래단위 로동자 강현숙동무는 삼지연군꾸리기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한 당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성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에게 많은 량의 수산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후방물자들을 성의껏 준비하여 지원하였으며 평양시무역관리국 아래단위 로동자 조향미동무 역시 가정의 지성이 깃든 솜옷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들을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기상수문국 수문연구소 연구사 박학명동무도 혁명의 성지건설을 다그쳐 끝내는데 절실히 필요한 많은 량의 물자를 지원하였다.

이밖에 대외건설지도국 부흥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로동자 정성남동무와 국립교향악단 연주가 최성국동무,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 일군인 리승주동무, 서성구여공원유원지관리소 로동자 김일혁동무와 평양정보기술국 정보화연구소 기사 리유일동무, 평성시 주례고급중학교 로동자 박미향동무와 평안남도인민병원 의사 김대복동무, 평안남도청년돌격대 대원 박철남동무와 순천도로건설대 로동자 김충성동무, 성천군 성천읍 29인민반 오영숙녀성과 신의주항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로동자 정윤찬동무, 함흥철도국 함흥조차장객화차대 부원 김선녀동무와 인민보안성 아래단위 통역원 김현아동무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지성다해 마련한 많은 물자들을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 보내주었다.

각지 청소년학생들도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충정의 마음을 쏟아붓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광일학생과 수학부 문혁종학생, 재료과학부 최학철학생과 물리학부 김영제학생은 북방의 어려운 조건에서 백열전을 벌리고있는 돌격대원들의 기세와 열의를 북돋아주고 보다 큰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설비들과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인쇄공학부 하진룡학생과 평북종합대학 의학대학 현미명학생, 황북종합대학 기계공학부 박진범학생과 함흥의학대학 제2의학부 윤선학생,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콤퓨터기술대학 콤퓨터학원 조명록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도 삼지연군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다.

량강도 영웅혜산제1중학교 박원명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삼지연군꾸리기에 떨쳐나선 형님, 누나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하면서 부모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평양제1중학교 초급반 서한용학생은 삼지연군꾸리기대상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준비하여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건설장에 찾아가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양시원대에 넘겨주었다.

대동강구역 청류소학교의 나어린 리위명학생도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부모들의 도움으로 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물자를 마련하여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에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각지의 수많은 청소년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지원하고있다.

날이 흐를수록 백두산기슭의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더욱 훌륭하게 꾸리는 사업에 충정의 마음과 애국지성을 바쳐가는 지원자들의 대오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김치곤

뜨거운 정성으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가리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을 낳은 옥류아동병원을 또다시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한통의 감동적인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최북단 경흥군, 심심산골인 룡야리의 평범한 농장원인 장순철동무였다. 그는 바로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의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인간애와 보배손에 떠받들려 새 심장을 달아안은 장은희의 아버지였다.

《평양에서 돌아온 우리 은희를 안고 온 마을이 로동당만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우리 룡야리사람들은 매일같이 평양하늘을 우러러 큰절을 드립니다!》

어제날에는 피로움의 눈물로 딸애의 이별짓을 적시던 은희어머니가 오늘은 기쁨의 눈물로 발이랑을 적시며 포전에서 살다 싶이 한다고 한다.

《로동신문》에 소개된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의 소행에 대한 인민들의 감동넘친 목소리를 안고 우리는 또다시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우에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병원도 그 병원이요 사람도 그 사람들이지만 불과 몇달전에 우리가 위재왔을 때보다 병원의 분위기는 더욱 앙양되여있었다.

우리가 먼저 찾은 심장혈관외과의 외래진료실에서부터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충격이 있었다.

어린 환자들을 데리고온 부모들의 첫인사가 인상깊었다.

《김진명선생님이지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심장혈관외과의 관문이라고도 할수 있는 외래진료실을 담당한 의사 김진명동무,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그의 이름을 마치도 구면인듯이 정답게 부르며 접수를 시작하는것이였다.

《최근 보름어간에만도 접수한 환자들의 수가 평시의 근 2배로 늘어났습니다. 난치의 병이니 어쩔수 없다고 애당초 병원에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함께 신문에 소개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오산덕동의 한명숙할머니는 이제는 외우다싶이 신문기사를 읽었지만 성차지 않았다. 우정 제신소까지 찾아간 할머니는 감동에 젖어 신문을 펼쳐든 사람들앞에 마치도 강사인듯 스스로 나섰다.

《기사에 나오는 회령땅의 9살 소년이 바로 우리 손자라오.》

이렇게 시작된 할머니의 눈물에 젖은 이야기는 또 하나의 실효모임으로 번져졌다.

《집식구들은 물론이고 온 마을이 우리 손자를 두고 이젠 명이 다된 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옥류아동병원의 심장혈관외과 선생님들이 자식의 병든 심장을 숱한 품을 들여 고쳐주었습니다. 늘 남의 등에 업혀 등교길에 오르던 우리 손자가 올해 개학날 막 뛰어서 교실에 들어설 땐 꼭 꿈을 꾸는것 같습디다. 이게 다 우리 원수님의 덕, 사회주의덕이 아니겠소.》

할머니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소리쳐 이야기해주고싶었다. 자기 가문의 은인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의 소행에 대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병원인 옥류아동병원에 대하여 만사람이 다 알도록 이야기해주는것이 바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할머니는 생각했던것이다.

심장수술을 받고난 후에 손자는 키도 몸무게도 부쩍부쩍 늘어나 온 마을을 깜짝 놀래웠다고 한다. 매일 저울에 달아본다고 몸무게가 불어나겠냐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믿음직하였다.

시바삐 선생님들에게 골라보게 달라진 자기 모습을 사진찍어보내겠다고, 어서 커서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꿈과 희망에 부풀어 사는 필룡이, 손자의 손을 잡고 이른아침마다 오산덕마루에 오를 때면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외우군 한다고 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에 제발로 걸어가 제손으로 꽃다발을 드리고싶었던 너의 소원을 어버지원수님께서 꿈같이 풀어주셨구나.》

부파장 김철진동무는 깊은 생각에 젖어 이렇게 말했다.

《자최들이 치료해준 3 000여명의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 인사를 보내온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것은 자기들도 선생님들처럼 만리마시대에 생의 자욱을 남기겠다는, 고마운 사회주의가 준 새 심장을 조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들의 한결같은 결의입니다.》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인민이 보내는 인사,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정성에 대한 인민의 평가이고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사랑의 찬가이며 만리마시대의 힘찬 진군길에 목숨도 바칠 애국의 선서가 아니겠는가.

만리마대진군대오의 앞장에서 발구름높이 나가는것은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만이 아니다. 소아심장외과의 개척과 정복이라는 길에 남모르는 땀을 묻으며 심장을 불태워온 의료일군들과 함께 오늘은 그들의 가족들이 만리마대진군대오에 발걸음맞춰 떨쳐나섰다.

간호원들인 최순정, 김수옥, 리옥별동무들만이 아닌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의 혈육들 누구나 천리마시대의 진공원작업반처럼 만리마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라고 일터로 떠밀어주며 이렇게 당부한다고 한다. 두꺼, 세꺼이 아니라 열꺼을 하라고, 우리도 만리마기수의 가족답게 살겠다고.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의 출근시간은 빨라지고 퇴근시간은 늦어졌다.

집단주의열풍이 더욱 거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심장혈관외과의 벽들에는 혁신의 새 소식을 담은 속보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소아심장외과의 래일을 높은 실력으로 담보할 굳은 맹세를 안고 새 세대 의사들인 박일영, 안혁, 김원철, 변지웅동무들은 또다시 새로운 첨단에 도전해나섰다.

지난 4월초 병원에서는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인 심장혈관외과집단을 따라배우기 위한 실효모임이 깊은 감명속에 진행되였다.

그속에는 심장혈관외과의 수많은 간호원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제날의 간호장이였던 병원 총간호장 조희숙동무도 있었고 10년전 선천성심장질병을 수술받은 딸애의 어머니로서 심장혈관외과의 발전력사의 한순간을 눈물겹게 목격했던 갓난아이치료과 과장 김향미동무도 있었다.

끝에도 만사람이 우러르는 영광의 단상을 생각해본적 없었던 소아심장외과의 개척자들도, 꽃나이 청춘시절을 아이들의 새 심장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박은정, 김성미동무를 비롯한 간호원들도 요란한 박수갈채속에 묻혀 받아안은 축하의 꽃송이우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그들을 축하하여 연단에 달려나간 누구에게나 토론문은 없었다. 그러나 거침없고 가식없는 그들의 진실한 토로,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이 다름아닌 옥류아동병원, 우리곁에서 태여났다는 자부심은 만장을 달구었다.

심장혈관외과집단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옥류아동병원을 찾아 급시라도 우리 원수님 오신것만 같아 청상을 박차고 일터로 달려나왔다는 소화기내과 과장 한혜순동무의 이야기는 얼마나 뜨거웠고 때없이 수술장에서 손도 같이 씻고 수술칼도 함께 쥐는, 정떨하게만 생각했던 그들을 두고 뇌신경외과 과장 김진명동무가 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던가.

《인민이 아는 의사들은 걸교머리가 남달리 좋아서 되는것이 아니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체질화할 때 그가 누구이든 시대가 부르는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집단이 될수 있다는것을 저는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만리마선구자집단이 되자. 래일은 우리 병원이 만리마병원이 되자!

불같은 새 결의들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던 그날을 돌이켜보며 병원초급당위원장 남현숙동무는 확신에 넘쳐 말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 이것이 만리마대진군에 얼마나 큰 박차를 가해주는가를 다시한번 절감했습니다.》

한점의 불꽃이 거세찬 불길로 타번지고있다.

복부외과에서, 뇌신경외과에서, 일반외과에서 새 혁신, 새 기적창조의 주인공들이 앞을 다투어 태여나고있다. 첨단기술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낳게 한 그 주인공들이 다름아닌 기술부원장, 과장들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만리마선구자집단의 기수로 삼기 위하여 만리마의 고삐를 더욱 억세게 틀어쥔 지휘관들의 모습을 그려볼수 있었다. 올해 병원의 목표는 모든 과들에서 한가지이상의 새 치료법을 도입 일반화하는것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높은 옥류아동병원을 나서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만리마시대의 주인공들과 선구자집단을 찾아가는 우리의 다음번 주인공은 누구일것인가.

고운 웃음 밝게 터치며 병원문을 나서는 저 산골소년의 담당의사일수도 있고 그들의 부모들일수도 있으며 그 마을의 단발머리처녀교원일수도 있다. 두줄기 철길을 지켜가는 락석감시원일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각도 미지의 세계를 헤쳐가는 과학연구집단일수도 있다. 만리마선구자는 결코 쇠물결는 용광로나 발전소건설장 돌격대기발아래서만 태여나는것이 아니다.

시대를 뒤흔든 유명한 산울림도 심심산골에서 울려나오지 않았던가.

만리마의 힘찬 발구름소리는 여기서도 들린다. 인민의 모든 꿈이 현실로 꽃펴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만리마는 어디서나 솟구쳐오른다.

천리마시대가 바로 그렇게 전진하지 않았던가.

* *

이른아침 정히 엮은 꽃바구니를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옥류아동병원 일군들과 심장혈관외과 의료일군들이였다.

한계단한계단에 추억과 명세를 싣는 그들의 눈가에 천리마동상이 안겨왔다. 그 천리마동상에 보건일군의 모습은 없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두번다시 태여난 방하수소년을 로동당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며 보건일군들을 천리마시대의 단상에 세워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하늘같은 믿음이 가슴벅차게 안겨왔다.

그 믿음과 더불어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어가는데서 옥류아동병원이 온 나라 병원들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당부가 만수대언덕에 올라선 그들의 심장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조인수원장은 눈물에 젖어 심장의 말을 삼가 아뢰였다.

《어버이장군님,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우리 심장혈관외과집단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리마시대의 참된 보건일군집단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조국의 기둥감들로, 로동당의 귀중한 자식들로 받들어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를 더 높이 울려가겠습니다!》

본사기자 조향선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 결속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에 속한 우리 나라의 기관차팀과 몽골의 에르친팀사이의 2차경기가 5월 31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기관차팀은 에르친팀과의 1차경기에서 3:0을 기록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 팀 선수들은 드센 공격으로 상대팀 방어진을 압박하였다. 경기주도권을 틀어쥐고 높은 공다루기기술과 재치있는 2, 3인결합으로 상대팀 문전을 위협하며 확고한 우세를 차지한 우리 팀 선수들은 전반전 30분경, 40분경에 득점한데 이어 후반전에서도 5개의 골을 련이어 성공시켰다. 경기는 기관차팀이 에르친팀을 7: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다.

한편 우리 나라의 4.25팀은 지난 5월 17일 몽골에서 진행된 에르친팀과의 2차경기에서 5:0으로 이겼다.

결과 2017년 아시아축구련맹컵경기대회 9조(동아시아지역)경기에서는 가장 높은 성적을 쟁취한 우리 나라의 4.25팀이 다음단계경기에 진출하게 되였다.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세계금연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5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건부문,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올해 세계보건기구가 제기한 금연활동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담배가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엄중히 파괴할뿐아니라 사회경제생활에도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금연제품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공공장소들에서 흡연감독통제사업을 보다 강화하여야 금연활동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어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소개편집물 《생명을 위협하는 특등 〈기호품〉》을 시청하였으며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을 보았다.

한편 이날 중앙과 각 도위생선전관, 치료예방기관들에서 금연선전활동이 진행되였다.

로씨야에 가는 철도성대표단 출발

장혁 철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로씨야의 쏘치에서 진행되는 철도협조기구 제45차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5월 31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안상연 철도성 부상과 알렉싼드르 마페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세상이 보란듯이 밝게 웃어라, 활짝 피여라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독차지한듯 밝게 웃으며 마음껏 뛰여노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에 이끌려 며칠전 중구역 대동문유치원을 찾았다.

멋진 유희기재들이 즐지어 늘어선 마당에서 재롱을 부리는 아이들, 해빛밝은 창가들에서 울려퍼지는 어은금소리, 가야금소리, 바이올린소리, 피아노소리…

동화세계를 펼쳐놓은듯 대동문유치원은 첫인상부터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틀어잡았다.

동심에 맞는 갖가지 장식들과 직관물들로 벽과 천정을 빡빡 채우다싶이 한 복도와 계단, 특색있게 꾸려진 교양실들과 물놀이장 등도 훌륭하였다. 전과방들마다에서 애기단풍잎같이 작은 손으로 가야금줄을 튕기고 바이올린과 피아노 등을 연주하며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앞에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이 모든것은 주체68(1979)년 5월 11일 유치원교육단계에서부터 조기음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입니다. …》

우리와 만난 공훈교원인 원장 김형애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지난 수십년동안 대동문유치원을 거쳐 관록있는 예술단체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인재들로 자라난 사람들의 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공연을 진행한 어린이들과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이름난 연주가들을 하나하나 짚아가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유치원에서부터 조기음악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하여 또한번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그럴수록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재능의 새싹을 찾아내여 소중히 키워가는 사업에 자신들의 온넋을 쏟아붓고있는 교양원들이 무척 돋보였다.

사실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소질을 정확히 가려내자면 교양원의 음악전공실력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린이들의 눈빛과 얼굴표정, 자그마한 손동작 하나도 놓치지 말고 관찰할줄 알아야 하며 또 나타나는 특징적인 세부들을 분석종합할줄 아는 능력도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것은 어린이들과의 접촉경험이 그리 많지 못한 젊은 교양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김형애동무를 비롯한 유치원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세월 재간둥이들을 키워온 교양원들의 경험발표회와 교수참관사업을 자주 조직하였다. 현대적인 교육교양수단들을 리용한 보여주기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유치원에는 김명순, 서의숙, 리희성, 장선영동무를 비롯하여 수십년동안 재간둥이들을 키워온 교양원들이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서 첫 음악교육을 받으며 자란 새 세대 교양원들도 많다. 그러니 결국 새 세대 교양원들은 유치원시절 자기에게 음악적기초를 닦아준 스승에게서 오늘은 교육자적인 안목을 넓혀나가는 방법도 배우고있는것이다.

그 과정에 학위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들로 자라난 김은선, 남수경, 정혜경동무들을 비롯한 젊은 교양원들의 교수자질은 비상히 높아졌다. 어린이들의 성격상특징이나 육체적조건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악기와 곡목선정을 옳바로 해줌으로써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수많이 키워낼수 있는 방법들을 체득한것이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원수님은 꼭 오실거야》를 비롯한 여러편의 노래들도 작곡하고 감정표현능력을 높여주기 위해 부모들과 긴밀히 련계하여 가정교양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이 유치원 교양원들이 진행하고있는 남다른 사업들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나라의 기둥감이 될 뛰여난 재간둥이들을 찾아내여 키우고있다는 바로 거기에서 남다른 보람과 기쁨을 찾으며 우리 당의 조기음악교육정책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교사꾸리기와 태양빛전지관, 태양열물가열기의 설치, 식당의 위생환경보장을 위한 사업 등을 비롯한 교육교양조건과 환경개선사업들을 방학기간에 전투적으로 밀고나가면서도 재간둥이들을 키우는 사업에서는 단 한자루의 붓도 멈지 않았다. 해마다 뜻깊은 5월 11일이 되면 재간둥이들의 공연무대를 펼쳐놓고 조기음악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현실로 뚜렷이 립증하였다.

이런 교육자들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현실로 펼쳐가고있다. 이처럼 량심적으로, 헌신적으로 자신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이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온 세상이 부러웁게 날로 높아가고있다.

재능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가는 우리 아이들아 세상이 보란듯이 더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여라, 앞날의 조선은 너희들의것이다.

글 본사기자 한경철
사진 본사기자 한광명

국가가 인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돌봐주는 우리 제도가 제일

방문기

산천에 울려퍼지는 고마움의 노래

함경북도정형외과병원을 찾아서

길주군 읍에서 명천군목으로 뻗은 도로를 따라 얼마쯤 달리느라면 차창너머로 고창령기슭의 경치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는 아담하고 산뜻한 건물들이 나진다.

정지물과 수제물 등 산촌의 유정한 정서를 자아내는 물들이 합쳐지는 아늑한 곳에 한폭의 그림처럼 들어앉은 이 건물들이 바로 온수평온천과 함께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자자한 함경북도정형외과병원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방의 뜨거운 온정속에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로 새롭게 변모된 병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당과 국가로부터 받아안는 사회적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다시한번 심장깊이 절감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누구나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입니다.》

한낮이 기울무렵 병원에 도착한 우리는 마침 정문과 나란히 서있는 접수과에서 원장 박용일동무와 과장 윤광일동무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온온한 색갈로 단장된 병원건물들이 주변경치와 어울려 마치도 휴양소를 방불케 한다는 우리의 말에 박용일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예로부터 온수평온천은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온천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해방전에는 한줌도 못되는 지배계급의 유흥장소로 리용되였을뿐 가난한 사람들은 이 근처에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함경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주변경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에 효과적인 온수평온천이 있는 이곳을 료양소로 잘 꾸려 근로자들이 온천의 덕을 더 많이 보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료양소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현대적이며 전문적인 정형외과병원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우리는 병원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름난 온천, 약수터마다에 자리잡고있는 병원과 료양소 그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이 소중히 아로새겨져있음을 가슴뜨겁게 새겨안을수 있었다.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 조국을 해방하고 온천과 약수터가 있는 불밝고 공기좋은 곳마다에 료양소를 지어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쳐주시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는 한 산간마을의 약수터에 들리시여 전쟁이 끝난 다음 승리한 우리 인민들이 여기서 휴식도 하고 병도 치료하게 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더욱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어버이사랑이 있어 오늘 우리 인민은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의료봉사기지마다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것이 아닌가.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는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광천치료실을 돌아보았다. 산뜻한 타일로 단장되고 모든것이 정갈하게 꾸려진 이곳에서는 동력을 전혀 쓰지 않고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온천을 리용하여 전신욕, 사와욕, 수중전인욕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있었다.

《온수평온천은 광물질함량이 많아 외상 및 수술후유증과 척추질병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곳 광천치료실의 하루수용능력은 수백명에 달하는데 치료효과가 좋은것으로 하여 도는 물론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윤광일동무의 말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얼마전 이곳에서 치료를 받은 한 환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다. 평양에서 온 그 환자는 사업상관계로 다른 나라에 출장간 기회에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온천에 가보게 되였는데 치료비가 너무도 엄청나 평범한 사람들은 온천치료같은것은 생각도 못하더라고 하면서 참으로 우리 나라가 제일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윤광일동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다시한번 절감하며 우리는 여러 과들이 자리잡고있는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처음으로 들린 곳은 1외과였다. 우리와 만난 과장 김동환동무는 지난 시기 과에서는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라고 하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환자치료에서 집단적혁신과 뜨거운 정성을 발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담아 이야기했다.

생명이 경각에 달했던 길주군의 한 로동자를 위해 과의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쳐 그를 소생시킨 감동적인 사실이며 하반신마비로 오랜 나날 침상에 누워있던 청진시의 한 특류영예군인이 치료를 받은지 불과 석달만에 두발로 대지를 밟게 된 가슴뜨거운 사연…

1외과뿐이 아니였다. 2외과와 3외과, 물리치료과를 비롯하여 우리가 들린 모든 과의 의료일군들이 당과 국가의 혜택이 환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었다. 그들은 부하자전거, 저주파직류치료기, 임풀스치료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치료수단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하여 치료에 적극 리용함으로써 각종 신경계통질병들과 척추질병, 관절염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었다.

《지금 우리 병원으로는 전국각지에서 수많은 편지들이 날아오고있습니다. 편지들에는 지난 시기 교치기 힘든 병을 앓던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조국보위초소에도 서고 상급학교에도 입학하였으며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였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실려있습니다.》

3외과 과장 박성철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인민을 제일 사랑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사회처럼 훌륭한 사회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우리가 병원을 돌아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 나라에 공기처럼 흐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참된 사랑과 정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되새겨볼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눈부신 저녁해살속에 병원의 건물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어디선가 은은한 손풍금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름다운 선률은 고창령기슭에 흘러퍼지는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다함없는 찬가로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본사기자 리 남 호

평범한 생활의 갈피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그때 당위원장방에는 아침 첫 시간인데도 많은 일군들이 모여있었다.

아마 무슨 긴급조치가 있는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임에서 포치된 문제는 뜻밖에도 공장의 일군들이 이동검진을 나온 의사들의 사업을 잘 방조함에 대한것이였다.

당위원회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에서는 끝없는 은정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사돕에 대하는 건강검진도 그런 사랑속에 마련된것입니다. 오늘 검진을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여기고 모든 녀성종업원들이 잘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공장에 이동검진을 나온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의사 리승미동무를 만났다.

우리 나라에는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일정한 나이에 이른 녀성들을 위하여 진행하는 전주민검진과 녀성들이 많이 일하고있는 기관이나 기업소들에 나가 진행하는 이동검진을 비롯하여 온 나라 녀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검진체계가 세워져있다고 한다. 이렇게 세워진 검진체계에 의하여 연구소가 문을 연 후 지난 몇해동안에만도 수십개 단위의 수만명의 녀성들이 이동검진을 받았으며 많은 녀성들이 전문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리승미동무는 계속하여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녀성들이 유선질병치료를 받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치료비, 약값이라는 말조차도 모르며 앉은자리에서 우리 녀성들이 받아안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어떻게 수자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물과 공기처럼 평범하게 받아안으며 사는 사람들은 비단 우리 녀성들뿐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청진시 라남구역 신흥동에서 사는 한 로인은 도치과병원의료일군들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로환으로 범상히 여기던 치과질병을 말끔히 치료해주었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신평군에 살고있는 한 로인도 도인민병원의 치료대가 산골마을에까지 찾아와 시력검사도 하고 치료도 해주어 광명을 되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자본주의나라 의사들이 병원문턱에서 환자들의 돈주머니를 저울질하고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들을 찾아 정성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고있다.

언제인가 평양산원을 찾았던 미국의 한 기자는 갓난애기들을 돌보는 우리 간호원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한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뜻밖의 물음에 미리를 기웃거리는 간호원을 바라보며 그 기자는 그럴줄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조선에서 태여난 이 애기는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까?〉 하고 묻고있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나는 많은 곳을 돌아보고 이 나라 제도에 대하여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인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에서 태여난 사람들이 일생동안 얼마나 큰 배려속에 살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태여나기 전부터 시작하여 일생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건강을 법적으로 담보받으면서 사는 우리 인민들의 삶은 실로 얼마나 복된것인가.

평범한 하나의 생활처럼 되고있는 이동검진에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꽃피워주시는 우리모두의 복받은 삶의 한토막이 생동하게 반영되여있다.

본사기자 리 경 일

다시 찾은 청춘의 희열

지난 1월 겨울방학을 맞아 룡연군에 있는 집으로 갔던 김형직사범대학 수학부 학생인 김충원동무는 급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였다. 그의 부모들은 아들의 침상곁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때 대학에서 그의 집으로 전화가 왔다. 어서 평양으로 올라오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노래에도 있지만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입니다.》

김만유병원 의료일군들이 김충원동무를 기다리고있었다. 하여 그는 지난 2월말부터 김만유병원 비뇨기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였다.

과장 최정민동무와 담당의사 리헌근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구급대책을 세우는 한편 피검사와 뇨도조영촬영, 복부초음파검사를 비롯한 갖가지 검사들을 세밀하게 진행하면서 환자의 병치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해나갔다.

그것은 무려 한달동안이나 계속되였다.

그동안 같은 과의 환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는것을 볼 때마다 김충원동무는 은근히 조바심을 느꼈다. 담당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는 언제면 수술받게 되는가고 물었지만 그가 들은것은 좀더 있어야 한다는 한가지 대답뿐이였다.

어느날 밤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을무렵 의사실앞을 지나던 김충원동무는 과의 의료일군들이 모여앉아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후에야 김충원동무는 의료일군들이 바로 자기의 병치료를 위해 퇴근시간도 미루어가며 밤늦도록 수술방안 연구와 론의를 거듭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과장 최정민, 담당의사 리헌근동무들뿐이 아니라 부과장 리일룬동무와 호병선, 홍성근, 정순녀동무를 비롯한 과의 모든 의료일군들의 지혜와 열정이 합쳐져 끝내 지금껏 해본적이 없는 어려운 수술을 단번성공하게 되였다.

수술후 김충원동무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졌다. 하루빨리 대학으로 돌아가고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사들은 조급성은 병치료에서 금물이라고 하면서 그의 치료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다. 그의 회복치료에 발벗고나선 리명화, 강옥성동무를 비롯한 간호원들의 진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그렇게 또다시 한달 남짓이 흘러서야 그는 대학으로 돌아가게 되였다. 병원문을 나서는 김충원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다른 나라같으면 막대한 수술비를 내고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입원비가 너무 비싸 환자들이 다음날로 퇴원한다고들 한다. 만일 그들이 이 나라의 이름없는 청년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공부를 하고 돈 한푼 내지 않고 70여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았다는것을 알았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하였겠는가.

각종 의료검사비와 자기 몸에 흘러든 약값, 식탁에 오르는 영양식사비가 얼마인지 그는 알수 없었다. 설사 그것을 계산할지언정 한 청년대학생의 앞날을 위해 바친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정성과 노력은 또 무엇으로 다 헤아린단 말인가.

정든 대학교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김충원동무의 가슴속에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을 뼈에 새긴 지난 70여일이 불덩이마냥 간직되여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 애국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준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입니다.》

올해 61살인 보건성 국장 안철순동무는 사업상관계로 여러 나라들을 다녀온 녀성일군이다.

얼마전 그와 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몇해전 안철순동무는 어느 한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토론회에 참가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시책에 대해 알고싶어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그는 질문도 많이 받았다. 그중에는 자식은 몇이며 녀성의 몸으로 사회의 중요한 직책에서 일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질문도 있었다.

뜻밖의 질문이였지만 안철순동무는 자식은 3명이며 그들을 모두 국가가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와 대학들에서 키워주고 공부시켜주어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었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생활이여서 평범하게 한 그 대답이 토론회에 참가한 녀성대표들의 놀라움을 살줄 몰랐다.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녀성대표 3명이 다 독신이였던것이다.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는것이 일자리를 잃는 요인으로 되며 설사 아이를 낳는다고 하여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도 막차하여 자기들의 생활수준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안철순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는 제도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을 쳤고 우리가 늘 범상히 말하군 하던 국가적부담이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였는가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였습니다.》

국가적부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도 평범히, 너무도 많이 써온 말이였다.

주체65(1976)년 4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어린이보육교양법의 조항들을 설명해주며 안철순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37년전 3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이 가져온 인민보건법초안을 보게 되시였다. 법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일군에게 조항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들에게 영양제를 공급할데 대한 문제는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 그 문제는 이미 어린이보육교양법에 구체적으로 밝혔기때문에 인민보건법에는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래도 어린이영양제공급문제만은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에 이런 조항이 보충되였다.

《해당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제, 특히 비타민과 성장촉진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가슴뜨거운 이야기였다. 그 은정속에 우리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받아안는 혜택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우리 나라에는 2만1000여개의 탁아소들이 있다. 그곳들에서의 어린이영양제공급을 위해 전국의 시, 군들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가 있고 도, 시, 군인민위원회들에는 탁아소담당부원도 있다. 이런 정연한 체계와 지도밑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들에서는 젖,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20여가지의 어린이영양물자들을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한다. 이 모든것이 법적으로 담보되여있다.

진정 아이를 낳아 국가의 부담으로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들도 다 모르고 받는 고마운 혜택.

하기에 언제인가 평화국책반부를 방문하였던 한 남조선사람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라의 귀중한 모든것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되며 어린이모두가 왕으로 받들리는 나라가 이북이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북은 나라전체가 행복의 요람, 가장 만족스런 기쁨의 동산이다. 이북어린이들은 산천에서 출생의 첫울음을 터치고 탁아소에서 재롱의 첫걸음을 뗀다. 행복의 유치원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희망의 소년궁전과 대음리들에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

그렇다. 세상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고 찬탄하는 어린이왕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안철순동무와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인민모두가 얼마나 고마운 품에 안겨사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한 귀중한 시간이였다.

본사기자 오 은 별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요람

보건성 일군이 들려준 이야기

호담당주민들에 대한 예방치료를 잘해나가고있다.
—대동강구역 문흥종합진료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국제아동절에 담는 녀성들의 소원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국제아동절이 밝아왔다.

어느날같으면 아직도 꼼나라를 헤매고있을 어린이들이 이날만은 새벽부터 일어나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이며 어서 탁아소며 유치원에 가자고 아버지, 어머니들을 재촉하리라. 탁아소, 유치원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앞에 삼가 드릴 향기로운 꽃송이를 작은 가슴에 정히 안아보는 기특한 아이들도 있고 6.1절의 화려한 무대에 올릴 노래며 춤가락을 다시금 익혀보는 재간둥이들도 있으리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리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국제아동절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흥성이는 날들중의 하나이다.

이날을 맞으며 방방곡곡의 탁아소, 유치원들에서는 아이들의 흥겨운 노래춤판이 펼쳐지고 즐거운 운동회가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염둥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낳아준 부모는 비록 잃었어도 당과 국가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행복둥이들로 자라고있는 각지 육아원과 애육원원아들의 6.1절광경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여 몸소 가지고가신 요구르트를 아이들의 손에 하나하나 들려주시고 빨대까지 손수 입에 물려주시며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바로 어머해전 국제아동절에 태여난 감동깊은 화폭이다.

우리 조국에 있어서 6.1절은 이렇듯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한껏 절정에 오르는 날이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들의 운명뿐이아니라 후대들의 행복과 앞날까지 다 맡아안아주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다.

어찌 6.1절뿐이랴.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사시절 사회주의의 밝은 해빛아래 나라의 왕으로, 조국과 혁명의 귀중한 보배로 떠받들리우고있다. 이 땅에 태여난 어린이라면 누구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며 한점 구김살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은 만사람의 기쁨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조국의 새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귀중한 미래로 자라나야 할 지구상의 수많은 아이들이 각종 질병으로 너무도 어린 나이에 일찌기 목숨을 잃고있으며 인신매매를 비롯한 갖은 사회악의 비참한 희생물로 되고있다.

얼마전 유엔아동기금은 무장충돌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어느 한 나라 어린이들의 처지가 매우 악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전하면서 그 나라의 한개 시에서만도 불과 한주일동안에 약 1만6000명의 피난민어린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10만여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극심한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고있으며 식량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는 어린이들의 수는 110만명에 이르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밝힌데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 계속되는 무장분쟁의 후과로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어린이사망자수는 약 1400명에 달한다고 한다.

1989년 11월에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복과 사랑, 리해의 분위기,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하지만 수많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의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여야 할 어린이들이 오히려 첫째가는 피해대상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약 5만4230명의 어린이가 학대행위로 피해를 받았다.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 46% 더 많은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당국은 날로 더해지는 어린이학대행위에 대한 사회적우려를 무마시키기 위해 지난해 아동복지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 나왔지만 그 식이 장식이라고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고있다.

오죽하면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까지도 물질적번영과 법치라는 기만적인 간판밑에 근로대중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여러 나라들에서 우심하게 벌어지는 어린이인권침해야말로 불치의 악폐로서 날로 병들고 멸망해가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였겠는가.

1949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민주녀성련맹 리사회회의에서는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선포하였으며 1950년부터 세계의 진보적녀성들과 인민들은 이날을 어린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련대적투쟁의 날로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3년전 국제민주녀성련맹은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식민주의, 인종주의정책의 희생물이 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하여 힘을 합쳐 싸울것을 세계사회에 엄렬히 호소하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지키려는 세계 진보적녀성들과 어머니들의 절절한 소망은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후대들에 대한 따뜻한 정보다 돈과 실리를 절대시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반동적인 정책이 사회적인 혜택을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어린이들에게 도리여 질병과 고통, 무지와 몽매, 가난과 굶주림만을 가져다주고있다.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져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목격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의 정책이야말로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귀감으로 된다고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어린이들의 진정한 삶의 요람, 따뜻한 보금자리는 다름아닌 사회주의이다. 전세계녀성들과 어머니들,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은 사회주의길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국제아동절에 즈음하여 이 땅의 녀성들과 공민들이 다시금 새겨안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허 명 숙

반미계급교양의 도수를 한층 높여

떡성탄광에서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데 맞게 당원들과 탄부들속에서 계급교양의 도수를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는 모든 갱, 직장들에서 계급투쟁을 심도있게 진행할데 대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가르치심을 모두가 자자구구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영화감상과 실효모임들을 실속있게 조직하는 한편 신천박물관과 중앙계급교양관, 탄광계급교양실참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고있다. 또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우리 조국땅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들을 자료적으로 깊이 인식시키고 계급교양주제의 특화물시청, 지은글발표모임,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도 실효성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청년동맹조직에서 진행한 지은글발표모임에서 새 세대 탄부들은 반미계급교양주제의 웅변글, 영화감상글, 성토문들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 연단에 뛰여올라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만행을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기어이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 복수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탄부들은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계급적원쑤들과는 끝까지 맞서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슴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로농통신원 연 전 행

미제가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릴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트럼프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 《4대기조》의 기만성과 교활성을 까밝힌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지난 몇달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골머리를 짜내던 끝에 마침내 대조선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확정한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4대기조》라는것을 공개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정식서명한 《4대기조》란 첫째로,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둘째로,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며 셋째로, 《북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으며 넷째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이 아닐수 없다.

미국안전보장회의를 필두로 국무성, 국방성, 국토안보성 등 주요부, 처들과 제노라하는 두뇌진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리길래 무슨 일이라도 치는가 했더니 큰 산이 울어 생쥐 네마리가 나온 격이 되였다.

대조선정책 《4대기조》라는 물건이 하도 진부하고 어이없고 허무맹랑한것이여서 일고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지만 력사의 교훈에 무지한 트럼프행정부가 허황한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여나도록 다시한번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을것 같다.

《핵보유국불인정》은 진퇴량난의 비명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4대기조》의 첫째 항목이다.

이것은 그 무슨 《정책》이라고 하기 전에 절망의 벼랑끝에서 질러대는 탄식소리 또는 막무가내로 부려대는 어거지떼라고 하는것이 합당할것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의기양양해서 돌고다니는 핵가방안에 핵단추와 함께 핵도장도 들어있는가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 핵을 가지고있는 나라들중 누가 미국의 도장을 찍고 핵보유국이 되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사활적요구와 자주적결단에 따라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였다.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우리가 핵을 보유한것이 아니다.

또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수중에 분명하게 틀어쥔 핵이 없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불인정》이니 뭐니 하고 미국이 말장난을 하는 이 시각에도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고있는것이 우리의 핵무력이다.

미국과 졸개들에게 묻건대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사정권안에 둔 우리의 전략로케트들이 우뢰같은 폭음을 울리며 만리대공에 떨쳐의 비행운을 힘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장쾌한 광경이 너무 눈이 부시여 눈앞의 현실이라고는 차마 믿지 못하겠다는것인가.

마치 명사수가 지격수보총으로 목표를 맞히는것처럼 그 명중성이 적의 눈깔도 파먹을만큼 정확한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들, 다량계렬생산되는 《북극성-2》형과 같은 주체탄, 주체무기들이 인민군 전략군에 실전배비되여 임의의 시간, 임의의 공간에서 저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이 쏟아져내리게 된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여 인정하지 못하겠다는것인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런것을 가리켜 주로 심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꺼려하던 공포스러운 현실에 맞다들었을 때 보이는 일종의 자기기만 또는 자제위안현상이라고 말한다.

의학자들은 눈앞의 대상을 변변히 가려보지 못하는것은 위험한 말기증상으로, 사물현상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것은 전형적인 정신병증세로 진단한다.

력사학자들은 객관적진실을 부정하고 과학적인식을 멈춰시키는것은 무지와 몽매, 아만적인 종교재판이 살판치던 중세의 암흑기에나 볼수 있었던 행태라고 설명한다.

문학가들은 우리가 핵을 보유했음에도 핵보유국이라고는 부르지 못하는 미국을 두고 서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전소설 《홍길동전》의 한페지를 보는것 같다고 조롱하고있다.

결국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우겨대는것은 눈뜬 소경들과 정신병자, 우매한자들뿐이라는 소리이다.

사실 미국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무척 괴로울것이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나가면 2020년까지 1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게 된다고 저들입으로 떠들면서도 핵보유국으로는 인정못하겠다는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스스로 모르지 않기때문이다.

끊임없는 대조선핵공갈과 기만적인 협상, 《전략적무시》정책으로 우리를 핵강국의 명마루를 향해 단계적으로 줄기차게 떠밀어온 《일등공신》이 바로 미국자신이라는 사실은 새로 출범한 트럼프행정부로 하여금 북의 핵보유국인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유산으로 물려준 이전 행정부것들을 그 얼마나 저주하게 할것인가.

명백한것은 이제 와서 《북핵제기》란 꿈도 꿀수 없을만큼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의 전략적지위는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을만큼 확고해졌다는것이다.

우리의 핵이 상대하고있는 적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터치려는 핵전쟁 그 자체로서 그 정의로운 성격과 정정당당한 사명은 온 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에게 이제 남은것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니 마느니 하는 부질없는 입방아를 찧는것밖에 없게 되였다.

결국 미국의 《핵보유국불인정》은 실제상 우리 공화국이 더는 무시할수 없는 핵강국으로 떠올랐다는것을 인정하는 완곡한 표현, 무언의 선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강화》는 궁여지책

《조선에 대해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것이 트럼프가 서명한 이른바 《4대기조》의 둘째 항목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작성자들이 정직한 사고를 풀지 못한채 마침내 한계에 부딪친것이 분명하다.

시대착오와 파탄망상에 걸린 돈 끼호테처럼 이전 행정부들이 골백번도 더 쓰다 줴버린 《제재와 압박》이라는 녹쓴 창을 백악관의 병갱기고에서 다시금 뒤져내여 꺼내들었기때문이다.

혹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말이 《묵시록》의 끔찍한 지옥장면을 떠올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여기에 《모든》이라는 관형사까지 덧붙이면 공포효과를 극대화할수 있으리라고 어리석게 타산하였을수도 있다.

실지로 미국을 그 어떤것도 마구 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비쳐지게 한다는 《공포작전》, 《충격작전》이 《미치광이리론》의 입김을 받으며 대옥 광기를 띠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미국정계에서는 트럼프패들이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에 나설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였는가 하면 미국내에서는 《2차조선전쟁씨나리오》가상도가 공개되여 《전쟁위기설》을 부추겨대였다.

미국의 한 정치군사평론가가 미국의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집단과 100대이상의 《F-16》전투기, 《F-35》스텔스전투기들이 조선반도지역에 급파되여 훈련하는것은 1991년 만전쟁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트럼프행정부가 괌도에서 민방위대책과 반테로문제까지 론의하게 된것은 《대북선제공격》이 림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평한것은 우연치 않다.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금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외교적징벌방안》까지 휘두르고있는가 하면 트럼프자신이 나서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돌아치며 대조선외교압박전선에 합류하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1g의 원유와 한톤의 돈도 우리 경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국경과 해상, 세계금융통로들에 촘촘한 제재봉쇄그물을 쳐놓고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코트》로 각국을 위협공갈하면서 우리를 질식시키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웬간한 나라는 이러루한 압력이면 휜기를 들고남았을것이다.

그러나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풋강아지처럼 덤벼드는 트럼프패들이야말로 어리석다 못해 가련하다 해야 할것이다.

보다 센것이 약한것을 누르는것을 가리켜 압박이라고 할 때 도대체 미국이 무슨 힘을 가지고 일심단결의 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인 우리를 압박한다는것인지 자먼소도 깨여나 웃을 일이다.

자유와 번영의 천국으로 광고하던 《아메리칸드림》은 이미 깨여져나간지 오랬고 미친듯한 침략전쟁으로 국고가 거덜이 나고 만성적재정위기, 극심한 빈부격차 등 불치의 미국병에 시달리느라 허약해지고 병들어 몸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늙고 병약한 환자가 바로 미국이다.

제몸도 가눔하기 힘들어 이제는 《세계헌병》노릇도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이 나라 저 나라에 돈을 내라고 손을 내미는 처지에 놓인 미국은 혼자힘으로는 조선을 압박할수 없으니 다른 나라들이 나서주는 수밖에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통하지 않는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을 무엇으로 압박할수 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강력으로 그 어떤 제재와 봉쇄의 쇠그물도 썩은 바줄처럼 끊어버리며 내달리는 만리마의 질풍노도를 무엇으로 막을수 있는가.

원쑤들의 제재강도가 세지면 그에 정비례하여 더욱 강해지는것이 조선의 정신력이며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높이 솟구쳐오르는것이 조선의 기상이다.

날로 악랄해지는 적대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소동은 우리가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 확신을 더욱 북돋아줄뿐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이 지난 70여년동안 조선에 대한 고립봉쇄와 압살책동으로 얻은것은 상처와 고통과 수치뿐이라는것을 명심하라는 백악관 선임자들의 심술한 조언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만능의 도깨비방망이로 여기고 함부로 조선에 대고 휘두르다가는 제머리만 까는 비극밖에 가져올것이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정권교체》나발은 오만무도의 극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을테니 제발 믿어달라.》느니 뭐니 하며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속에서 애원 카까운 어조로 울려나오던 이 말이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정책 《4대기조》의 셋째 조항으로 정식 들어앉았다.

영악한 미국의 속내가 들여다보이는 서투른 둔갑술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말이 신빙성을 띠자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적대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핵항공모함타격단과 특수전부력까지 끌어들여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도 그만두는 용기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야수의 본성이 변한다면 미국은 벌써 미국이 아닐것이다.

이 시각도 미제침략군의 특수전부대의 살인악당들은 《참수작전》을 떠들며 도발의 칼을 미친듯이 갈고있으며 악의 본산인 미중앙정보국은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기 위한 전문기구까지 조작하고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테로음모까지 꾸미며 발광하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병적증오심과 체질적거부감은 미제국주의의 영원히 고칠수 없는 악성병폐이다.

인류의 머리우에 반제자주의 기치, 정의의 태불로 빛을 뿌리는 조선의 붉은기가 침략과 략탈, 제 인민들의 피로 물든 미국의 성조기를 력사의 진창에 처박고 세기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현실은 미국으로서는 악몽이 아닐수 없을것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는 묵인하면서도 기를 쓰고 우리의 핵만을 문제시하면서 달려드는것은 바로 그것이 반미자주의 성새, 인류희망의 등대인 사회주의조선이 틀어쥔 핵이기때문이다.

정의의 핵무력으로 강성을 떨치고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인민의 모든 꿈을 활짝 꽃피우며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의 눈부신 위용은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내리막길을 걷는 미제국주의,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강력한 부정으로, 예리한 비수로 되고있다.

조선식사회주의가 성공하면 현세반응을 일으켜 세계정치의 지각이 달라지고 동방조선에서 일어번진 자주의 불은 파도가 세계판도를 휩쓸어 미국의 세계지배야망이 물거품이 되고 미국주도의 일극세상은 끝장나게 된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야말로 조선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서뿐아니라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서도 영원히 보존되고 소중히 가꾸어야 할 지구의 꽃이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더러 이 제도를 지키는 핵보검을 내놓으면 침략도 하지 않고 제도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고있으니 이것은 산사람보고 간을 빼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것이나 같은 뻔뻔스러운 수작이 아닐수 없다.

미국의 《정권교체배제》나발을 뒤집어보면 남강도의 횡포무도한 위협공갈이 독을 품기고있다.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침략도 불사하고 제도전복도 서슴지 않겠다는 소리인것이다.

애당초 한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침략을 하느니 마느니, 정권을 교체하느니 마느니 하는따위를 공공연히 정책기조로 정하는 자체가 얼마나 교만방자하고 횡포무도한 전횡인가.

저들이 누구의 제도를 전복하는것은 의례히 정의롭고 응당한것이지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그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너스레를 떠는것은 강도가 남의 집 문지방에 칼을 빼들고 서서 집주인에게 침범하지 않을테니 고맙게 생각하라고 지껄이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제도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잘 안다.

그것은 호시탐탐 우리 주권, 우리 제도를 노리는 침략자들에게 전률과 공포, 죽음을 들씌울 강위력한 우리 식의 주체무기, 핵공격수단들을 더 훌륭히, 더 많이 만들어내여 자위의 성새를 높이 쌓는 길이다.

미국은 감히 우리의 심장인 최고수뇌부와 신성한 우리 제도를 건드리는 경우 미국땅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망상을 미련없이 집어던져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은 교활한 요설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른바 《4대기조》의 마지막조항은 트럼프행정부가 진퇴량난과 궁여지책의 덫불에 빠져 헤매다가 이른 자가당착의 종착역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졸개들은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조미랑자대화나 6자회담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련이어 언론에 나서서 《북을 대화에로 유도하겠다.》느니,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느니, 《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수 있는 합리적선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마치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어른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화》라명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짓는 삶의 웃음일뿐이다.

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적인 순리라면 이른바 대조선정책 《4대기조》에서 제일 처음 있어야 할 《대화》조항이 거꾸로 맨 마지막에 그것도 《최종적으로》라는 딱지까지 달면채 놓인것만 보아도 그 흉심이 무엇인가를 대뜸 알수 있다.

그것은 선 압박, 후 협상원칙에 따라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구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탁에 끌어내여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것이다.

지금이 어느때이고 상대가 누구인데 19세기때 남의 나라 해안에 기여들어 대포를 광광 쏘아대고는 각종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포함외교》를 재현해보겠다고 너덜거리는가 하는것이다.

집에 간 놈 제에는 뜻이 없고 제밥에만 눈이 간다고 지금 미국은 《대화》의 간판은 걸치레로 내걸고 실지로는 제재압박과 《북핵제기》에만 눈이 새빨개 돌아가고있다.

미국의 백악관, 국무성, 의회 등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은 북의 태도변화이며 그를 위해 당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을 압박해야 한다.》는 소리가 울려나오고 트럼프가 직접 남조선당국에 대고 지금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단계인것만큼 대화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대조선압박노력에 적극 협력하라고 내리먹이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년동안 조미쌍방은 비공개 또는 공개로 별의별 협상을 다 벌려보았으며 그 과정에 1993년 6월의 조미공동성명, 1994년 10월의 조미기본합의문, 2000년 10월의 조미공동콤뮤니케, 2005년의 9.19공동성명, 2007년의 2.13합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합의와 성명도 힘겹게 도출해내였다. 비극은 그중 어느 하나도 해결된것이 없고 어느 하나도 리행된것이 없는것이다.

원인은 미국이 회담을 호상간 얽힌 문제를 푸는 장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공갈하는 수단으로, 세치 혀로 우리의 《주먹을 펴게》 하여 녹여내기 위한 공간으로 악용해온데 있다.

미국이 대화를 압박의 연장으로 여기는 한,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핵을 그 무엇과 바꿀수 있는 흥정물로 착각하는 한, 그 시꺼먼 속에서 칼을 꺼내놓지 않는 한 실사대화가 열린다 한들 인간과 야수와의 언어소통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 *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 이어 확정한 이른바 대조선정책 《4대기조》라는것은 백악관정책작성팀의 지적능력의 한계와 시야의 협애성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자신도 믿지 않는 그러한 궤변들은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조선의 핵에 부딪쳐 아메리카의 세계제패전략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된것은 물론 미국자신의 운명이 위태롭게 된데로부터 리저나온 숨가쁜 비명소리에 불과하다.

트럼프행정부가 진실로 우리와 그 무엇을 이루어보고싶다면 불인지 불인지 모르고 성급하게 놀아댈것이 아니라 트루맨으로부터 부쉬와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력대 행정부들이 왜 70년 넘도록 조선과 맞섰다가 모두 쓴맛을 보고 수치스럽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공부부터 똑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자는 과거를 되풀이하는 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트럼프의 일관성없고 예측불가능한 정책이 상상할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수 있다고 하는 미국정계와 대조선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쳐도 명실상부한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지위는 끄떡없으며 침략자, 도발자들이 미쳐 정신차릴새 없이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그쳐질것이다.

위대한 병진로선을 따라 우리가 가는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전 승 호

군국주의부활야망의 로골적발로

얼마전 일본수상은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 야스오까를 만나 국회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헌법개정안을 작성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면서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만들 의향을 다시금 표명해나섰다.

자민당 간사장과 헌법개정추진본부장도 수상이 지시한 헌법개정안작성을 위해 헌법개정추진본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론의를 다그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올해중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다음해 1월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참량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민당은 헌법개정추진본부를 확대하고 본부밑에 초안위원회를 내오려 하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이러한 책동은 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을 전쟁헌법으로 개악하여 군국주의를 기어이 부활시키자는것이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반인륜범죄로 얼룩진 과거사를 성근히 반성하고 다시는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침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개악책동에 광분하고있다.

헌법개악의 중점은 9조의 내용을 뒤집는것이다.

일본의 현행헌법 9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륙해공군과 기타 전투력을 보유하지 못하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의 이 조항은 일제패망후 일본군국주의가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것이였다. 9조에 언급된 전쟁포기내용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는것으로 해석되여왔다.

일본반동지배층은 현행헌법을 한사코 개악하여 전후 박탈당한 교전권, 참전권을 되찾는 한편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 하고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이루어보자는것, 바로 이것이 일본의 극우익반동들이 헌법개악을 통하여 노리는 주되는 목적이다.

지금까지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악을 최중요과제로 내세우고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오늘에 와서 그것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일본의 극우익세력들은 안전보장관련법과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을 조작하여 《자위대》가 아시아태평양의 넓은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벌릴수 있는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를 마련해놓았다. 이제는 민점데기뿐인 《평화헌법》의 틀거리마저 아예 없애버리고 해외침략의 길로 거침없이 질주하려 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은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아시아에서 또다시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피비린 살륙과 략탈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도 일본당국의 헌법개악책동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반동지배층은 명심해야 한다.

군국주의재침열기에 들떠 분별없이 날뛴다면 치명칠것은 오직 파국적종말뿐이다.

라 명 성

내부갈등으로 몰락하는 반역무리

남조선에서 피뢰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참패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결과는 박근혜역도의 탄핵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내리막길로 줄달음치고있는 피뢰보수패당의 가련한 신세를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피뢰보수패당이야말로 망해가는 집단이다.

먼저 피뢰보수의 아성인 《자유한국당》을 보기로 하자.

지금 《자유한국당》내에서는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섰던 홍준표와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정우택의 패거리들, 친박계와 비박계가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책임과 당권장악문제를 놓고 치렬한 싸움을 벌리고있다. 그것은 엄마 안있어 《자유한국당》이 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5월 17일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의 그 무슨 간담회라는것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자들은 저들끼리 별의별 욕지거리를 다 퍼부으며 개싸움질을 하는 웃지 못할 희비극을 펼쳤다. 이자들이 상대방에 대해 《바퀴벌레같다.》느니, 《가증스럽다.》느니, 《뒤통수를 때려놓겠다.》느니 하는 극단적인 욕언들을 쏟아내며 서로 깎아내리고 마구 물어뜯는 짖은 쪽 진흙탕에서 싸움질하는 개들을 련상케 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선거에서 패하여 악에 받친 나머지 저들끼리 치고받고하는 분풀이가 아니였다. 선거패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들씌워 아예 기를 꺾어버리고 《변화》와 《쇄신》의 간판밑에 당내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피터지는 싸움이였다.

이런 개싸움질이 얼마나 창피스러운 놀음이였으면 반역당내부에서까지 개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겠는가.

《대통령》선거이후 당지지률이 더욱 떨어져 아예 땅바닥에 나딩굴고있는 속에 《자유한국당》의 권력야심가들은 저마끔 《보수색채강화》니, 《보수대개혁》이니, 《신보수주의》니 하는것을 망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들고나오고있다. 특히 《대통령》선거에서 참패의 쓴맛을 보고 미국으로 쫓겨온 홍준표는 그 주제에 잠자코 있을 대신 《쇄신》이니, 《전투적야당》이니 하고 수작질하며 다시금 정치적야심을 드러내고있다. 얼마전에도 이자는 친박계가 《자유한국당》의 주도권을 장악하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 하면서 비박계패거리들을 직극 부추겼다. 이로 하여 이 반역당의 내부분렬은 더욱 심화되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야말로 정치적아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슨것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시정배무리이다. 이자들이 홍준표파와 정우택파, 친박계와 비박계로 갈라져 앙상블락하며 권력쟁탈전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사분오렬되고있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 조소하고있다.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처지도 다를바 없다.

한때 그 무슨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를 운운하며 《세누리당》을 뛰쳐나온 《바른정당》패거리들이였지만 지난 《대통령》선거를 며칠 앞두고 잔류파와 탈당파로 갈라지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잔류파들은 저들을 배신하고 《자유한국당》에 다시 가붙은 탈당파들을 《음식물찌끼기를 찾아 헤매는 들쥐》, 《썩은 고기를 쫓는 히에나》 등의 표현들까지 써가며 비난하고있다.

《바른정당》의 잔류파내부도 편안한것은 아니다. 《바른정당》에 남은 잔류파는 현재 끝까지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와 《국민의 당》과의 련대나 통합을 추구하는 파로 갈라져 대립하고있는 형편이다.

한편 서로 보수세력의 주도권을 장악할것을 노리고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싸움질도 그치지 않고있다. 《자유한국당》것들은 《바른정당》을 《류행좌파》, 《최순실록탄을 피하기 위한 도피용정당》이라고 헐뜯고있으며 《바른정당》패거리들은 《자유한국당》을 《도로친박당》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

망해가는 집안에 싸움이 잦은 법이다. 피뢰보수패당내부에서 심화되는 대립과 갈등은 이자들의 운명이 이미 정각에 이르렀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보수의 내부분렬이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정치가 고사상태에 처했다.》고 평하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을 비롯한 피뢰보수잔당들이 보수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치면서 동물린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 무슨 《합리적인 보수》와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와 《깨끗한 보수》따위를 부르짖고있지만 소용이 없다.

피뢰보수패거리들의 개싸움질은 제명을 다 산 력사의 쇠물들의 마지막발광일뿐이다. 이자들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욕에 환장하여 저들끼리 짓밟고 물어뜯는 추악한 개싸움질을 벌리고있는데 대해 남조선인민들은 이제는 환멸을 넘어 증오의 이를 갈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피뢰보수잔당들의 추태를 지켜보며 보수의 청산이자 적폐청산이고 보수가 없는 세상이 곧 민주화된 세상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가증스러운 보수잔당을 력사의 오물장에 처넣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신들의 투쟁으로 피뢰보수패당이 《합리적인 보수》, 《건전한 보수》인것이 아니라 망한 보수라는것을 반드시 립증할것이다.

김 충 성

자립적발전을 이룩해나갈 립장 천명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5월 25일 한 연설에서 이란인민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해나갈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최근에 있은 선거를 통하여 이란인민의 단합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하면서 그것은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제재의 그늘을 일시에 가셔버렸다고 말하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고 그는 이란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절대로 빌붙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은 그 누구처럼 미국이나 서방이 추파를 던지면 기뻐서 어쩔줄 몰라 헤맬비는 그러한 인민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을 비난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나토의 무력증강책동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로씨야국경카까이에서의 군사활동과 하부구조확대를 비롯하여 나토의 동유럽에서의 무력증강책동이 로씨야—나토기본문건에 위반되는것이며 군비경쟁을 초래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로씨야는 기본문건의 원칙들을 회피하고 로씨야국경카까이에서의 무력강화를 합법화하려는 나토의 시도들을 주시하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군 사 연 습 진 행

이란군 특군이 5월 24일 이스파한주에서 《베이트-알-모카다스 29》로 명명된 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습에는 보병과 포병, 신속대응무력, 특수군을 비롯한 여러 군부대들과 무인기, 직승기들이 동원되였다.

군사훈련도중 사고로 소동

미국 뉴저시주에서 5월 28일 락하산강하훈련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악명높은 미해군의 특수무대인 《네이비 씰》소속 미군병사가 락하산이 펴지지 않은채로 강물속에 곤두박혀 황천객이 되였다.

반 테 로 작 전

알제리군대가 5월 27일 따망라세트도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렸다.

결과 3명의 무장악당이 체포되고 많은 무기와 탄약이 압수되였다 한다.

스리랑카에서 무더기비피해 계속 확대

스리랑카의 남부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무더기비로 인한 큰물과 산사태로 5월 28일현재 사망자수는 151명, 행방불명자수는 111명으로 늘어났으며 95명이 부상당하였다. 총 피해자수는 100만명이상에 달하고있다 한다.

현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71086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